



금융위기 이후 세계 신용지도의 변화

이경아 연구원

-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제 평가현황 조사 결과 주요국 우량등급(AAA) 국채 발행 물량이 상당 규모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.
 - S&P, Moody's, Pitch 등 3대 신용평가사들로부터 'AAA 등급' 이상을 받는 국채 규모가 금융위기 대비 60%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.
 -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 기준 주요국 우량등급(triple-A) 국채의 발행 물량은 약 11조 달러였으나 2013년 3월 현재 이들의 발행 물량은 약 4조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(〈표 1〉 참조).

- 주요국 우량등급 국채 발행 물량의 감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임.
 - 지난 5년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미국, 프랑스 등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우량국채 등급인 'AAA'에서 이하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음.
 - S&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2011년 8월 AA+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+로 하향하였음.¹⁾
 - 특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국제 신용등급 상황이 급변하였으며, 이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음.
 - 동 기간 정부부채 위기로 인해 남부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 역시 대폭 하향 조정되었음.
 - 그리스, 키프로스, 스페인, 포르투갈, 아일랜드 등의 신용등급 하락 폭이 컸음.

-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신용등급이 하락한 반면 신흥국가들의 신용등급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음.
 -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국가는 우루과이, 볼리비아, 브라질로 대부분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등급 상향이 이루어졌음.

1) Bloomberg.

- S&P는 브라질의 장기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2007년 5월 BB+에서 2011년 11월 BBB로 상향조정하였으며, 우루과이 장기국채를 2008년 7월 BB에서 2011년 7월 BBB-로 상향 조정하였음.²⁾
- 이를 계기로 신흥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었으며, 금융 시스템과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금융당국의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음.

■ 신흥시장의 신용등급 상향과 유럽 및 주요국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투자적격 등급인 'BBB'등급 국채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음.

- BBB 등급 규모 증가는 신흥국 시장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남부 유럽국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것임.
 -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조나단 켈리는 “신흥국 시장이 한 때 고위험·고수익 자산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주류로 통한다”라고 평가하였음.

■ 이러한 세계 신용지도의 변화의 영향으로 'AAA'등급 채권 감소가 큰 유로존 지역에서는 금융기관 간 여신거래 시 담보물 부족(collateral crunch)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〈표 1〉 AAA 등급채 발행 규모

(단위: 달러)

	2007	2012
AAA 등급채 총발행규모	약 10조 9천억	약 4조
국가별 발행금액		
1위	미국: 약 4조 5천억	독일: 약 1조 7천억
2위	프랑스: 약 1조 5천억	캐나다: 약 6천억
3위	독일: 약 1조 4천억	네델란드: 약 4천억
4위	영국: 약 1조 2천억	싱가포르: 약 3천억

자료: 헤럴드 경제 내용 정리(2013. 3. 27).

(Financial Times, 헤럴드경제 등)

2) Bloomberg.